

AI LIVE OFFICE

코딩 지식 0 · 비개발자 실전 제작기

코딩 1도 모르는 44살 아빠가, AI랑 둘이서 회사를 차렸다

Claude로 만든
AI 직원들의 브라우저 사무실

무료 맛보기 · SAMPLE



스타터 키트 포함 · 따라 하면 브라우저에 바로 뜬다

싸 초

비개발자 · AI 제작 실험가

코딩 1도 모르는 44살 아빠가, AI랑 둘이서 회사를 차렸다

— 따라 만드는 AI 라이브 오피스: 구조 · 프롬프트 · 시행착오까지 담은 재현 키트

이 책을 덮을 때, 당신의 브라우저에는 당신만의 미니 AI 사무실이
실제로 떠 있습니다.

누구를 위한 책인가

- 개발은 못 하는데, AI로 **눈에 보이는 결과물**을 하나 만들어보고 싶은 사람
- "AI가 대단하다는데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같던" 평범한 직장인 · 자영업자 · 부모
- 구경거리가 아니라, **따라 하면 진짜 화면에 뜨는 실행서**를 원하는 사람

이 책이 지키는 약속

1. **재현성이 전부다.** 글만으로 안 되는 단계는 그대로 복붙하는 프롬프트 + 스크린샷 + "막히면 이렇게"를 붙였다.
2. **삽질을 숨기지 않는다.** 실제로 막혔던 지점과 빠져나온 방법을 다 보여준다.
3. **코드를 한 줄도 직접 작성하지 않는다.** (이름 · 명단 같은 '값'은 바꾸지만, 프로그래밍을 하는 건 아니다.) 당신이 하는 일은 **말로 시키고, 무엇이 틀렸는지 정확히 설명하는 것뿐.**
4. **스타터 키트를 동봉했다.** 받아서 "내 걸로 바꿔줘"라고 시키면 된다.

당신이 직접 만들 것

이 책을 따라 '**미니 라이브 오피스**'(건물 1~2층 + 직원 캐릭터 몇 명 + 실제 인터넷 배포)를 직접 완성합니다. 6층 · 자동화까지 들어간 풀버전은 스타터 키트로 제공합니다.

CONTENTS

목 차

시작하기 전에 — 딱 1분만

해주는 것 / 아닌 것 · 준비물 · 전체 흐름 · 성공 기준

1부 왜 · 무엇

1장 왜 시작했나

2장 AI를 '직원'으로 쓴다는 발상

3장 우리가 만들 것 — '라이브 오피스'의 전체 그림

2부 0 → 배포: 단계별 실전

STEP 0 준비물 갖추기 — 돈 안 드는 것부터

STEP 1 첫 화면 띄우기 — 키트를 열어 첫 성공

STEP 2 건물 배경 — 키트 건물 그대로, 원하면 내 걸로

STEP 3 캐릭터 올리기 — 명단을 내 직원으로

STEP 4 좌표 맞추기 — 공중부양 디버깅 ★

STEP 5 살아 움직이게 — 진짜 회사처럼

STEP 6 진짜 데이터 연결 — 살아있는 신호등

STEP 7 인터넷에 올리기 (배포)

3부

더 나아가기 + 부록

확장편 보이지 않는 직원들 — 자동화

마지막 장 당신도 할 수 있다 — 막혔을 때의 원칙

부록 A 스타터 키트 사용법

부록 B 복붙 프롬프트팩

부록 C 자주 막히는 문제 TOP 10

부록 D 자주 묻는 질문(FAQ)

부록 E 용어집

시작하기 전에 — 딱 1분만 읽어주세요

이 책은 '읽는 책'이 아니라 '따라 만드는 책'입니다. 시작 전에 네 가지만 확인하고 가면, 중간에 헤매지 않습니다.

① 이 책이 해주는 것 / 해주지 않는 것

해주는 것

- ☒ 코딩을 몰라도, **AI에게 말로 시켜서** 'AI 직원들의 사무실'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는 전 과정
- ☒ 막혔던 지점과 **빠져나온 방법**까지 그대로 (재현성)
- ☒ 이미 도는 **스타터 키트**(예제 파일) — 처음부터 만들 필요 없이 '내 것'으로 바꾸기

해주지 않는 것 (미리 솔직히 말합니다)

- ☒ 개발 실력을 길러주지는 않습니다 — 대신 *AI에게 일을 시키고, 틀린 곳을 짚는 법*을 배웁니다
- ☒ 당장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— 이 책은 'AI로 돈 버는 법'이 아니라 '결과물을 만드는 법'입니다
- ☒ 모든 컴퓨터에서 100% 똑같은 화면을 보장하진 못합니다 — AI 결과는 매번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, *그래서 '확실히 도는' 키트를 함께 드립니다*
- ☒ 외부 도구(Claude·ChatGPT 등)의 요금·정책 변경까지는 책임지지 못합니다 — 늘 공식 페이지의 최신값을 확인하세요

② 준비물 & 비용 (가리지 않고)

- **준비물**: Windows/Mac 컴퓨터, 인터넷, Chrome 권장, VS Code(무료), Cloudflare 계정(무료), 그리고 이 책의 스타터 키트
- **비용**: 설치·가입은 **무료**. 단 'AI 직원'을 실제로 부리는 **Claude Code는 유료 플랜**이 필요하고, 건물 그림용 ChatGPT 이미지 생성은 선택입니다. (요금은 수시로 바뀌니 공식 페이지 확인)

③ 따라가는 큰 흐름 (한눈에)

준비물(0) → 키트 열기(1) → 건물 이해·교체(2) → 직원 명단 내 걸로(3) → 자리 맞추기(4) → 움직임(5) → 데이터 연결(6) → 인터넷 배포(7) → 내 링크를 누군가에게

딱 이 길입니다. 2부가 이 순서 그대로 진행됩니다. 한 단계도 코드를 직접 타이핑하지 않습니다.

④ 어디까지 하면 '성공'인가

자신에게 맞는 지점까지만 가도 됩니다. 어디서 멈춰도 그건 성공입니다.

단계	이만큼 하면
최소 성공	키트의 <code>mini/index.html</code> 을 열어 브라우저에 내 사무실이 도는 걸 본다
기본 성공	회사 이름·직원 명단을 내 것으로 바꾼다
완성 성공	인터넷에 배포 해 누구에게나 보낼 링크를 얻는다
확장 성공	건물·캐릭터·실제 데이터·자동화까지 내 프로젝트에 맞게 키운다

💡 **막히는 건 실패가 아니라 과정입니다.** 따라 하다 "어, 안 되는데?" 싶은 순간은 누구에게나 옵니다. 그래서 모든 STEP 끝에 「 막히면 이렇게」를 넣었고, 책 뒤에 「부록 C. 자주 막히는 문제 TOP 10」과 「무엇이든 물어보는 만능 프롬프트」를 따로 모아뒀습니다. 사실 막힘의 대부분은 *캐시(화면이 옛 걸 붙들고 있음)*나 *저장 안 함* 같은 사소한 것이라, 당황하지 않고 안내대로만 하면 풀립니다. **혼자 끙끙대지 말고, 막히면 그대로 AI에게 물어보세요** — 그게 이 책의 방식입니다.

자, 준비됐으면 — 왜 이걸 시작했는지부터 짧게.

1부. 왜 · 무엇

이 책은 후기가 아니라 실행서다. 하지만 실행에 앞서, 내가 왜 이걸 시작했는지를 짧게 말해두고 싶다. 방법만 알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지만, **끝까지 가게 만드는 건 결국 이유**이기 때문이다.

1장. 왜 시작했나

회사를 나오던 날

2026년 2월, 나는 회사를 나왔다. 서류상으로는 자발적 퇴직이었다.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,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.

나는 한 제조업 분야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. 회사와 오래 갈등이 있었다. 부당하다고 느낀 일들이 있었고, 나는 동료들과 함께 정당한 절차를 밟아 그 일에 맞섰다. 길고 지치는 싸움이었지만, 끝내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.

그런데 돌아온 자리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.

돌아와서 얼마간 일하는 동안, 나는 이곳이 더 이상 예전의 그곳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느꼈다. 여기서 다 풀어놓을 수는 없지만 — 그 긴 일을 겪는 사이 사람들 마음에 금이 갔다. 나와 누가 틀어진 건 아니었다. 다만 그 **공기**가, 그 어색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견디기 어려웠다. 매일 그 긴장 속에 출근해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조금씩 지치게 했다.

마흔넷이었다. 결정은 내가 내렸지만, 그 결정을 떠민 건 내가 아니었다.

나에게 없던 것, 그리고 있던 것

퇴직금과 약간의 위로금을 들고 나왔다. 그리고 곧바로 막막함이 밀려왔다. *이 나이에, 이제 뭘 해서 먹고살아야 하나. 어떻게 살아야 하나.*

위로는 챙겨야 할 가족이 있고, 아래로는 **네 아이**가 있었다. 통장은 정직했고, 매달 같은 날짜에 빠져나가는 돈은 내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. 직장 생활로는 답이 없다는 건 분명했다.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었다. 그래서 일단 **뭐라도 하자**는 마음으로 오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. 하지만 그것만으로 여섯 식구가 살 수는 없었다. 남은 시간에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건 너무도 분명했다. 문제는 '**무엇을**' 이었다.

솔직히 나는 개발자가 아니다. 코드를 짤 줄 모른다. 디자인도, 마케팅도 배운 적이 없다. 부업을 검색하면 나오는 답은 늘 똑같았다. **기술을 배워라, 외주를 맡겨라, 자본이 있어야 한다.** 배울 시간도, 외주 줄 돈도, 굴릴 자본도 없는 사람에겐 다 남의 이야기였다.

그런데 나에게 없는 것만 있었던 건 아니다. 사실 나는 예전부터 가만히 있는 성격이 못 됐다. 한 직장엔 자리 잡기 전에도 이런저런 부업과 장사를 직접 벌여 굴려본 적이 있었다 — 그럭저럭 굴려간 것도, 조용히 접은 것도 있었지만, 그렇게 **'뭐라도 만들어 팔아본' 경험**이 몸에 배어 있었다. 거기에 한번 마음먹으면 끝을 보는 끈기, 무엇보다 **일단 닥치고 실행하는 기질**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된다고 믿는 긍정이 있었다. 그리고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 특유의 절박함이 있었다.

지금 와서 돌아보면, 그 절박함이 결국 나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 앉혔다. 코드 한 줄 못 짜는 내가, 컴퓨터 앞에서 **AI에게 일을 시키는** 자리에.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려고 한다.

그래서 책까지 쓰게 됐다

나는 결국, AI 하나를 붙들고 이것저것 만들기 시작했다. 그러다 만든 것이 이 책의 주인공인 **'라이브 오피스'** — 내가 만든 사이트와 봇들이 직원처럼 일하는, 한 화면에 다 들어 있는 가상의 사무실이다. (이게 정확히 뭔지, 무엇으로 이뤄져 있는지는 다음 장과 2부에서 차근차근 보여주겠다.)

어느 날 이 사무실 화면을 SNS에 올렸다. 반응은 내가 예상한 것 이상이었다. **이거 어떻게 만들었냐, 배우고 싶다**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고, 신기해하고 재밌어하는 사람이 많았다.

그때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. **코딩을 1도 모르는 나 같은 40대 아저씨도 만들었으니, 누구나 만들 수 있다.** 이 사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다. 그게 이 책을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다.

이 책이 약속하는 것 (그리고 약속하지 않는 것)

이 책은 "AI로 월 천만 원 버는 법" 같은 책이 아니다. 나는 아직 그 자리에 도달하지 못했고,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그런 약속을 하는 건 정직하지 않다.

이 책이 약속하는 건 **재현**이다. 코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, AI 하나를 '직원'처럼 부려서 — 눈에 보이는 결과물 하나를 **직접 만들어 인터넷에 올리기까지.** 그 전 과정을, 막혔던 지점과 빠져나온 방법까지 하나도 빠지 않고 적었다. 이 책을 덮을 때, 당신의 브라우저에는 당신만의 작은 AI 사무실이 실제로 떠 있을 것이다.

당신이 개발자라면 이 책은 너무 쉬울 것이다. 하지만 당신이 나처럼 — **기술은 없는데 만들고는 싶은 사람**이라면, 이 책은 "나도 할 수 있겠다"는 첫 번째 증거가 되어줄 것이다.

여기까지가 무료 맛보기입니다

왜 시작했는지, 무엇을 만드느지는 여기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. 이제부터가 진짜 — **어떻게 따라 만드느지**입니다.

전체 책 + 스타터 키트에는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.

- **2부. 0 → 배포: 단계별 실전** (STEP 0~7) — 그대로 복붙하는 프롬프트 + 스크린샷 + "막히면 이렇게"
- **스타터 키트** — 미니 라이브 오피스(받아서 더블클릭) + 6층 풀버전 엔진 코드
- **설계도 · 층별 배치표 / 실패 프롬프트 전후 비교 / 따라 만들기 체크리스트**
- **상황별 프롬프트팩 (00~10)** — 막혔을 때 그대로 복사해 쓰는 만능 프롬프트

받아서 "내 걸로 바꿔줘" 한마디면, 당신의 브라우저에도 사무실이 뜹니다.

출시 알림 받기

지금은 초판을 마무리하는 중입니다. 출시되면 **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.**

→ 대기 신청 : <https://forms.gle/4trCnx6adY6RXZxUA> (이메일만 — 결제 없음)

먼저 신청해 주신 분께 오픈 기념가로 가장 먼저 안내드립니다.